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④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④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② 37. ①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5] 화법

[1~3]

1. 토의의 절차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진행된 토의 속에서 토의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먼저 정 과장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관광객이 줄고 있음을 문제와 관련된 현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김 교수의 제안에 대해 정 과장은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2.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김 교수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서원을 전통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이끌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발언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정 과장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3. 협상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의 후 진행된 협상에서 참여자들이 조정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토의에서 고택 주인은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라며 이미 정 과장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고택 주인이 토의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협상 조정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정 과장은 고택 주인이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고택 주인은 정과장이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⑤ 고택 주인은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①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②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④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7]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청소년 소비 태도’와 관련한 주장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④의 경우 ‘Ⅱ-3-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상표에 기대려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소비 행태와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경우, 글의 유형이 논설문인 점과 글의 내용이 ‘청소년의 소비 태도’와 관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경우, ‘Ⅲ. 결론’의 제시 방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경우, 상위 항목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의 원인 분석에 해당하는 현황이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청소년의 금융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의 경우, ‘Ⅱ-2-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글의 흐름에 어울리므로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Ⅱ-3-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로 인해 충동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청소년이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들의 구매 선택에 광고 속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상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 내용은 ‘Ⅱ-3-다’의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에 접목하면 ⑤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충동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광고와 연관된 내용과 비판적 수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비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는 ‘Ⅱ-3-다’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광고가 비효율적인 광고임을 청소년이 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개요의 흐름과 거리가 멀다. ④ 청소년의 소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모바일 기기’와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은 개요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8. 글쓰기의 전략

정답해설 : 개요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의 계획이 실제 글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는 답사 취지는 제시되어 있지만, 답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1~2행에는 베개 용암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이 밝혀져 있고, 13행에는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밝혀져 있다. ㉢ 11~12행에서 베개 용암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답사의 목적이 밝혀져 있다. ㉣ 3행에서 ‘베개 용암’이라는 답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8행에서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에서 밝히고 있듯이 답사 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1행에서 ○○신문에 언급된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2~4행에서 답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 또한 밝히고 있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쓰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쓰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인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의 일부 조항들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의 세 번째 항목인 ‘니’ 모음의 발음에 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첫째 ‘그, 닐’처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기], [니]처럼 []로 발음할 것, 둘째 ‘충의’와 같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로도 발음할 수 있어 ‘충의’는 [충의]나 [충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 셋째 관형격 조사 ‘의’는 [키]로도 발음할 수 있어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의의’를 [충의의], [충이의], [충의에],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는 ⑤의 진술은 사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개’의 ‘ㄲ’과 ‘계’의 ‘ㄱ’는 엄연히 다른 단모음으로 이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과 지역에 따라 ‘ㄲ’을 ‘ㄱ’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계’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첫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때 그 발음은 [네]와 같아진다. 따라서 ‘금괴’를 [금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예, 레’ 이외의 ‘ㄷ’은 [키]로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④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비취다’의 ‘ㄷ’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ㄷ’을 []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따라서 ‘비취다’를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데’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13.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아니요’와 ‘아니오’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어 된 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십시오, 가 오, 가게,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네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1㉠이 아닌 바래다1㉡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각각 ㉠과 ㉡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래다1은 ㉠ ‘(누가) 요행을 바래다.’, ㉡ ‘(누가) 돈

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라다1㉠ 역시 ‘(누가) 이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1㉠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으)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데, 바라다1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 ‘ㆍ’의 통시적 변화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사슴’이 ‘사슴’으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이며, ‘가장’이 ‘가장’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은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마늘’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흙’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다. ④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ㅑ’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17~30] 독서

[17-20] 인문, ‘대상의 본질’

지문해설 : 이 글은 대상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후적으로 구성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철학적 탐구가 본질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제] 대상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17.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은 없으며, 다만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인 본질은 어떤 대상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본질주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② 개체의 본질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③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인 본질이 어떤 대상에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⑤ ‘반본질주의’는 같은 종류에 속한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인 본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18. 내용 간의 의미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은 ‘사람’에 대한 정의이고, ㉡은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이다. ㉡을 통해 ㉠이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위’에 대한 정의인 ㉢의 ㉠과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위’가 아닌 ㉢의 ㉡은 지문 속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은 ㉠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③ ㉡은 ㉠의 피정의항과 동일한 대상이다. ④ ㉡은 ㉠의 피정의항에 속해 있지만, 정의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⑤ ㉡은 ㉠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19. 구체적 상황예의 적용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대상의 근원적 속성인 본질이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을 발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본질이 대상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본질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은 ‘반본질주의’이므로,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정한 언어 약정인 ‘사바کم’은 본질과 거리가 멀어 널리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본질주의’는 사물의 본질이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으로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본질주의

자'는 (가)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의가 약정적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보면,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반본질주의자들은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다.

20. 읽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이른바'는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어이므로, 이를 통해 글쓴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는 이 글의 핵심어이므로,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㉔는 '예를 들자면'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㉔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한 이해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㉔는 앞에 나오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㉔를 통해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㉔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㉔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21~23] 사회,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공유'

지문해설 : 이 글은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규정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제도 및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개념과 한계

21.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4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 공유 캠페인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는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과 같이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공정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도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주장의 확인

정답해설 : 5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 허락 조건’의 표시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5문단에서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확대를 반대할 것이다. ⑤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공유가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3.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하였고, B는 이와 같은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 A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A의 저작권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A는 B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A는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B는 침해된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A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없었다면, A는 공정 이용을 근거로 저작권자인 B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④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저작물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A가 B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저작물 이용이 이 규정을 준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⑤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B가 A의 출처를 표시한 미술 평론의 일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24~27]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옴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

24.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기마상에서 뺀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5.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옴팔로스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어느 곳에 있는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이므로 ‘분할된’으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8~29] 과학, ‘입체 지각’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람이 입체를 지각하는 방식 중의 하나 단안 단서를 설명하고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는 정보를 말한다. 한 눈으로 얻는 정보는 2차원이지만, ‘시각(視覺)의 차이,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을 활용해서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제] 단안 단서에 의한 입체 지각의 방법

28.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 의하면, 직선 원근은 단안 단서의 하나이므로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4문단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에서 일부 동물들은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문단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즉 단안 단서만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도 ‘경험을 통해’ 입체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라는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와 3문단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물체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를 연결지으면, 새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운동시차’를 얻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관찰자인 다람쥐가 운동할 때, 정지해 있는 여우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운동시차를 이용해서 여우와의 거리를 파악한 행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양안 단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안 단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3문단 1행을 보면,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통해 다람쥐에게서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 6행에서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안 단서이므로 축구공의 크기 변화는 결 기울기로 볼 수 없다. ⑤ 2문단 2행에서 ‘시각의 차이’ 활용은 단안 요인이므로 눈 한쪽을 가려도 여전히 축구공이 커지는 것을 축구공이 다가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 생활독서, 선인들의 책임기

30.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알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② (가)에서는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인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나)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찾으라는 것은 (가), (나) 모두와 맞지 않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1.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형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4-37] 고전소설, 작가 미상, ‘조웅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역적이두병을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 일대기 형식을 취하면서도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 나타나는 신이한 출생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의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이 중심을 이루며 도술적 힘에 의한 영웅적 활약상과 함께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작품의 전면에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진충보국을 위한 영웅의 활약상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데.’와 같이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 장면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는 모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은 찾을 수 없다. ③ [A]와 [B]에는 모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은 [A]와 [B]에서 모두 찾을 수 없다. ⑤ [A], [B]에는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공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5.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강백’은 일부러 삼대를 흔들어 놓기 위해 두 형의 혼백에 대해 언급하며 ‘삼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으므로 슬하를 잠깐 떠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이 신의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강백에게 삼대의 우편만을 공격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우편만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대가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조웅이 엮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크게 놀랐다고 하였으므로, 부인이 조웅의 죄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를 통해 월경 대사가 부인에게 조웅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형세의 어려움을 들어 예절을 차릴 수 없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보다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조웅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장 소저를 취하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다. ③ 대사가 웅을 데리고 삼 년에 걸쳐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사가 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웅이 삼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을 통해 조웅의 지략과 용맹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삼대가 왼손과 관련하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7.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은 삼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거리며 도망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몹시 놀라 뉘를 잃음을 뜻하는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38~40]

[38~40] 현대시 - (가) 백석, ‘팔원-서행시초 3’ / (나) 하종오, ‘동승’

지문해설 : (가)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린 계집아이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계집아이의 불확실한 행선지는 바로 식민지 치하의 우리 민족의 방향성을 상실한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새하얗게 얼은’, ‘텅 비인 차 안’ 등과 같은 구절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추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극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주제] 한 소녀의 삶을 통해 본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

(나)는 국철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연히 보게 된 경험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그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의 행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편견에 사로잡혀 외국인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그에 대한 반성

38.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성찰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부정적 현실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므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여유롭게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계집아이를 내지인 주재소장 집의 식모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므로, ㉠의 ‘유리창 밖’에 있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은 유리창 안의 ‘계집아이’와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합자동차’에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인 채로, 즉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터졌다는 것은 손잔등이 갈라졌다는 의미이므로 어린 나이임에도 노동에 시달렸음을 드러낸다. ③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소녀가 가기에 매우 먼 거리를 뜻하므로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의 앞 행에는 ‘계집아이는 운다’고 되어 있으며 ㉡에는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고 했으므로 ‘눈을 씻는’ 행위는 결국 운다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저이들’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이다. 모자를 하나 사서 서로 번갈아 써 보는 행동 등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철’을 타고 있는 화자의 시선은 처음에는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나’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가 <보기>에서 말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면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④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시선에 가치 평가적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승’은 차, 비행기 등을 함께 타는 행위를 뜻하므로 조화로운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43]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이 동경을 출발하여 서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전형적인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 이인화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조선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한 지식인의 의식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4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천대를 받아도 얻어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의 잘못된 유행과 근본 정신은 생각지도 않고 선조의 산소 치레나 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쌀쌀하게 비웃는 '나'의 태도가 냉소적인 어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적 배경을 찾을 수 없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면만 제시되고 있어 빈번한 장면 전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어진 장면 속 사건 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삽화 형식으로 나열된 인물들의 체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를 통해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다.

②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나'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장돌뱅이가 '공동묘지 법'은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집터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 장면 속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것은 지문에 나타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 속에서 '나'는 '생활 철학'을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는 진술은 작품의 내용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생활 현실과 관련된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국어 B 정답 및 해설

고 있으므로, 생활의 표현을 통해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려고 한 작가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③ ‘나’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제와 관료제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④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공동묘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의 흔적을 다루려고 한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⑤ 일인칭 시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성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관심을 찾을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훌쩍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